

Meritz 조선/기계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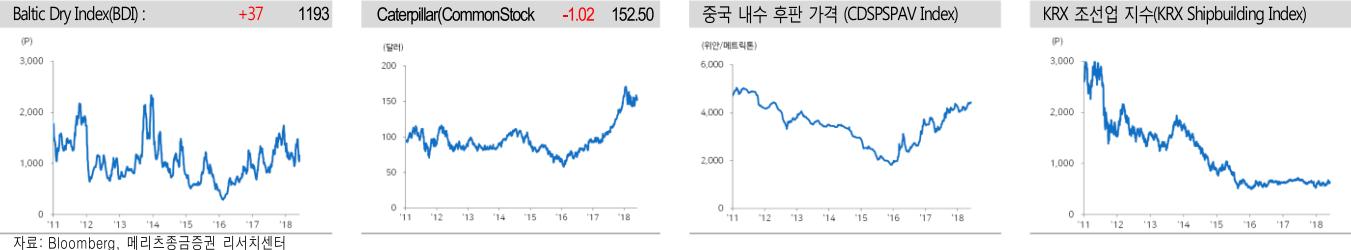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종가 (원)	1D	1M	3M	YTD	PER(x)		PBR(x)		ROE (%)	
				(%)	(%)	(%)	(%)	18E	19E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8,161.5	16.4	118,000	22	-52	-99	23.0	822	394	0.6	0.6	0.7	1.4
현대중공업시주	6,416.9	21.7	394,000	22	-4.8	-7.5	3.4	53	44	0.7	0.6	14.1	14.7
현대미밸트릭	903.2	4.5	88,500	-0.6	-11.5	1.3	-22.4	84	7.3	0.7	0.7	9.3	9.7
현대건설기계	1,595.0	8.3	161,500	0.6	-12.0	-3.3	-4.4	103	7.6	1.1	1.0	11.7	13.9
삼성중공업	4,788.0	17.3	7,600	1.7	2.4	4.4	17.5	47.9	23.8	0.5	0.5	1.0	1.9
대우조선해양	2,899.9	4.8	27,050	0.7	7.3	10.2	94.6	8.6	124	0.8	0.8	10.2	6.5
현대미포조선	1,888.0	9.9	94,400	2.6	-6.5	-11.4	19.9	204	14.7	0.7	0.7	3.6	4.8
한진중공업	352.6	6.5	3,325	1.8	-5.8	1.1	0.5	66.9	16.7	0.5	0.5	0.7	2.8
현대엘리베이터	3,286.2	22.2	121,000	-3.2	21.1	110.8	122.4	214	20.8	2.9	2.6	14.6	13.3
두산밥캣	3,388.4	26.7	33,800	-0.4	5.8	1.8	-5.6	12.4	11.7	1.0	0.9	7.4	7.6
현대로템	3,446.8	14.6	40,550	0.7	27.5	162.5	116.3	52.3	35.6	2.3	2.2	4.5	6.3
하이록코리아	413.8	49.3	30,400	-0.2	10.1	27.2	35.1	13.8	12.6	1.2	1.1	8.8	9.0
성광밴드	358.9	17.6	12,550	-3.1	-0.4	5.5	25.8	1,109.4	450	0.8	0.8	0.1	1.8
태광	337.9	12.5	12,750	-0.8	-12.7	-11.8	5.8	76.1	37.2	0.8	0.8	1.0	2.1
두산중공업	1,969.6	11.9	18,500	-0.8	-3.6	26.3	20.5	20.1	11.6	0.6	0.6	3.6	5.4
두산인프라코어	2,196.0	15.6	10,550	1.0	1.9	16.1	21.4	7.5	6.9	1.2	1.0	16.0	15.1
두산엔진	496.9	4.5	7,150	0.0	6.1	62.1	94.0	-25.1	-39.6	1.0	1.0	-3.0	-3.5
한국항공우주산업	4,410.7	14.8	45,250	2.0	-0.2	-7.5	-4.6	34.1	25.3	3.6	3.1	10.4	13.0
한화테크윈	1,699.0	12.8	32,300	-3.4	24.5	15.8	-9.1	36.4	21.0	0.8	0.7	2.1	3.5
LIG넥스원	1,083.5	8.9	49,250	-1.7	16.0	4.2	-17.6	21.3	14.4	1.7	1.5	8.6	11.4
태웅	373.1	4.7	18,650	-0.5	-9.0	-9.2	-3.6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인텍	169.7	4.7	6,290	-2.0	-0.8	-28.4	24.6	-46.3	66.2	2.0	1.9	-4.3	3.1
한국카본	268.6	13.7	6,110	-1.6	-1.1	-3.9	14.0	33.3	17.3	0.8	0.8	2.5	4.7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현대상선, 3兆 규모 선박 20척 발주

현대상선은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을 건조할 선사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을 선정했다고 발표함. 총 12척의 2.3만TEU급은 대우조선해양 7척, 삼성중공업 5척으로 배분했고, 인도는 2020년 2분기로 예정됨. 또 8척의 1.4만TEU급은 현대중공업에 발주했고, 인도는 2021년 2분기로 계획됨.

이르면 1~2주 내에 현대상선은 건조의향서(LOI)를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건조계약을 준비할 예정으로 알려짐.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1) 후판가격 상승과 2) 환율 강세 등으로 건조선가가 오르고 있어, 이를 시일 내에 LOI를 체결하고 선가를 확정할 계획임. 현대상선은 이번 신조 발주를 통해 기존 선복량 43만TEU에서 82만TEU로 늘어날 예정이며, 미주 동부해안과 유럽에 투입해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으로 알려짐. (한국경제)

Kalogiratos digests Marinakis VLCC orders

Evangelos Marinakis는 2020년 환경규제에 따라 대규모 VLCC 폐선을 전망함. 또 최근 Vitol이 주문한 VLCC 선수가 9천만달러였던 사례와 비교하며, 현재 철강가가 오르고 있음에도 자사가 삼성중공업에 발주한 VLCC 8척은 청당 8천만달러 수준이라 성공적인 투자라고 주장함. (TradeWinds)

Angelicouassis 'bets' on LNG newbuild prices passing \$200m

646척의 선박을 보유한 John Angelicouassis는 한국의 숙련된 노동자의 감소 등 선가상승 요인이 많음에도 낮은 LNG선 신조선 가격에 대해 언급함. 현재 LNG선 신조선가는 1.8억달러인 반면, Angelicouassis는 2억달러 이상이 적절한 가격으로 주장함. 이는 2004년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알려짐. (TradeWinds)

Singapore to have bunker tankers supplying LNG by 2020

싱가폴 해운항만청(MPA)은 450만달러를 FuelNG사에 투자해 LNG벙커링 선박 2척을 확보하고, 향후 LNG벙커링을 계획하고 있음. FuelNG는 Keppel, Shell, Pavilion Gas가 만든 JV로, 발주한 벙커링 선박의 인도는 2020년으로 예정됨. 싱가풀은 LNG벙커링 하브의 입지를 확보할 계획임. (TradeWinds)

현대로템, 대만 역대 최대 9098억원 규모 철도차량 사업 수주

현대로템은 대만 철도청(TRA)에서 발주한 9,098억원 규모의 교외선 전동차 520량 납품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힘. 전량을 창원공장에서 생산해 2024년까지 납품할 계획임. 현대로템은 대만에 1973년 첫 진출 이후로 총 766량을 납품했고, 이번 수주로 총 1,286량을 수주했다고 알려짐. (아시아경제)